

高麗時代 媽祖信仰 接觸過程에 關한 考察

朴 現 圭*

차 례

- 一. 서론
- 二. 고려중기 마조신앙의 접촉과정
- 三. 고려말기 마조신앙의 접촉과정
- 四. 결론

一. 서론

예로부터 바닷가 지역에는 많은 해양신앙이 존재한다. 바다는 평소에는 물결이 고요하여 평온한 느낌을 주지만, 조그마한 날씨 변화에도 세찬 파도를 일어나 위협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만약 악천후 속에서 거센 풍랑이 일어나면 이겨낼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의해 선박이 파손되고 급기야 인명이 손실되는 경우도 발생된다. 오랫동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사는 뱃사람일지라도 바다에 나아가서는 자신의 생명과 선박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받을 수가 없다. 바닷가 사람들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해신이 바다에서 뱃사람들의 생명과 선박의 안전을 관장한다고 믿고 있으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해신 숭배 사상이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媽祖신앙은 중화 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해양신앙 중의 하나이다. 마조는 원래 林默이라는 실존 여성이 승격한 인격신이다. 송나라 때 임목은 복건 莆田 앞 바다인 湄洲嶼에서 태어났다. 생전에 인간화복을 점치고 해난사고를 막아주는神通력을 보여주었고, 사후에 미주 섬사람들에 의해 해양보호신으로 섬겨졌다. 곧이어 미주서 주변 지역에서 마조를 모시는 사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급기야 송나라 조정으

* 順天鄉大學 中文科 教授 jongyeop99@hanmail.net

로부터 묘액을 받아 공식적인 신앙으로 인정을 받게되었다. 그 후 마조신앙은 다른 지역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원·명대에 들어와서 마조신앙이 더욱 발전해나갔고, 청나라 때는 천상 최고신의 반열까지 올랐다. 오늘날 마조를 모시는 사당의 분포 지역을 보면 중국 대륙의 해안지역과 내륙 수역에 널리 퍼져있고, 화교가 이주한 해외 지역으로 급속도로 번져나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아니 전 세계적인 해양신앙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오늘날 한국 민간신앙에는 마조신앙의 존재가 무색할 정도로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한반도에도 마조신앙과 유사한 해양신앙이 존재하지만, 이들 신앙은 한반도에서 자생된 것으로 마조신앙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한국에서는 마조신앙과 관련된 국내외 분석 자료도 별로 많지 않은 편이다. 다만 陳正祥이 한반도 지역을 포함시킨 중국 媽祖廟 분포도가 있고,¹⁾ 중국에서 고려·조선인의 마조 관련 시 6편을 수록한 마조 자료집,²⁾ 한국 高惠蓮이 조선 후기의 중국 표류인과 인천 소재 화교 지역의 마조묘를 언급한 논문³⁾ 등이 있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단편적인 사항을 언급한 것으로 한국 마조신앙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문이 서술된 바가 없다.

한국에서는 과연 마조신앙을 받아들였는가? 만약 마조신앙을 받아들였다면, 역대적으로 어떠한 경로로 전파되었는가?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궁금하다. 필자는 마조신앙의 한국 유입에 대해 수년 전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해왔다. 고려시대는 한국인이 마조신앙을 처음으로 접촉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일부 지역이지만 마조신앙을 믿고 있었고, 조선인들이 마조신앙을 믿고 있던 작품이나 기록들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연구 범위는 시기적으로 고려시대의 마조 관련자료로 한정시키고, 조선시대의 마조 관련자료는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논문으로 작성하고자 한다.

1) 陳正祥, 〈媽祖廟(天后宮)之分布〉, 《中國歷史·文化地理圖冊》, 原書房, 東京, 1982. 4, 쪽 155, 圖91.

2) 蔣維鈞·鄭麗航輯纂, 《媽祖文獻史料彙編》(詩詞卷), 中國檔案出版社, 北京, 2007. 10, 쪽 33~35.

3) 高惠蓮, 〈皇會와 朝鮮의 媽祖寺院〉, 中國史研究, 50집, 中國史學會, 2007. 10, 쪽225, 245~248.

二. 고려중기 마조신앙의 접촉과정

북송 선화 4년(고려 예종 17년; 1122) 3월에 송나라 휘종은 고려와의 외교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國信使를 고려국으로 파견했다. 이때 정사는 路允迪이고, 부사는 傅墨卿이었다. 이해 9월에 휘종은 고려 睿宗이 승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들 일행에게 祭典과 弔慰의 임무까지 겸하도록 했다. 이들 일행은 선화 5년(인종 1년; 1123) 3월 14일에 수도 汴京(開封)을 떠나 5월 4일에 明州(寧波)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神舟 2척과 客舟 6척으로 선단을 구성했다. 5월 16일에 명주를 출발하여 6월 12일에 松京(개성)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한 달 동안 송경에서 머물다가 귀국 길에 올랐다. 7월 13일 송경을 떠나 8월 27일에 명주 定海에 도착했다. 徐兢은 이번 사절의 提轄人船禮物官으로 사행 기간에 보고 들었던 사실을 기록해두었다가 귀국한 이듬해 그림을 곁들인 책자들 만들어 조정에 바쳤다. 이 책자가 바로 《宣和奉使高麗圖經》이다. 현재 전해오는 제판본은 모두 그림이 없고 문장만 남아있다.

白塘 李氏는 복건 莆田 지역의 명문 집안이다. 이들 집안에서 편찬한 淸鈔本 《白塘李氏族譜》 忠部에는 마조신앙의 전과과정을 기술한 남송 廖鵬飛의 〈聖墩祖廟重建順濟廟記〉가 수록되어있다.⁴⁾ 요붕비는 복건 仙遊 사람이며, 송 紹興 12년(1143)에 진사 명단에 올랐다. 〈성돈조묘중건순제묘기〉는 남송 紹興 20년(1150)에 작성되었으며, 현존 마조 기록 중 작성 연도가 가장 빠른 자료이다.⁵⁾ 이 기문에서:

姓林氏，湄洲嶼人。初，以巫祝爲事，能預知人禍福。既歿，衆爲立廟於本嶼。聖墩去嶼幾百里，一故商舶尤藉以指南，得吉卜而濟。雖怒濤洶涌，舟亦無恙。一宣和壬寅歲也。越明年癸卯，給事中路允迪使高麗，道東海，值風浪震盪，舳艫相衝者八，而覆溺者七，獨公所乘舟，有女神登檣竿，爲旋舞狀，俄獲安濟。因詰於衆，時同事者保義郎李振，素奉聖墩之神，具道其詳。還奏諸朝，詔以順濟爲廟額。

성은 임씨이고, 湄洲嶼 사람이다. 처음에는 무술 축원 일을 하였으며 인

4) 蔣維鈞·鄭麗航輯纂, 《媽祖文獻史料彙編》(碑記卷), 中國檔案出版社, 北京, 2007. 10, 쪽1~2에서 인용.

5) 蔣維鈞, 〈一篇最早的媽祖文獻資料的發現及其意義〉, 《媽祖研究論文集》, 鷺江出版社, 1989; 《媽祖研究論集》, 海風出版社, 福州, 2006. 6, 쪽36~47

간의 화복을 예지할 수 있었다. 죽은 후 무리들은 본도(미주서)에 사당을 세웠다. 聖墩은 섬에서 몇 백리 떨어져있다. — 그러므로 상선은 더욱指南으로 삼아 길조를 점쳐서 건넜다. 비록 노도가 밀어 닫쳐도 배는 또한 무사했다. — 宣和 임인년(4년: 1122)이다. 이듬해 계묘년(1123)에 급사 중 路允迪이 고려로 출사했다. 동해를 지나다가 바다를 뒤덮을 풍랑을 만나 선박 8척이 서로 충돌하여 7척이 뒤집혀 침몰했다. 오로지 공이 탄 배에 여신이 돛대에 올라 춤을 추어 홀연히 안전하게 빠져나왔다. 무리들에게 까닭을 물으니, 이때 동료 保義郎 李振이 평소 聖墩의 신을 모시고 있는데, 모두 상세하게 아뢰었다. 돌아와 조정에 주청하니 '順濟'라는 廟額을 하사했다.

여기에서는 마조의 출신과 생전 능력, 사당 건립과 分廟, 노운적의 고려 출사와 마조의 영험함 등이 기술되어있다. 노운적은 고려로 출사하는 도중에 노도를 만나 침몰 위기에 빠졌으나, 마조가 선상의 돛대에 올라 춤을 추며 조난사고를 방지해주는 신령함을 보여주었다. 노운적은 마조의 신령함을 목도하고 그 까닭을 물으니, 保義郎 李振은 聖墩에서 모시는 마조신앙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주었다. 白塘 李氏의 족보 기록에 의하면 이진은 18세에 노운적을 따라 고려에 갔다 온 후에 承信郎을 제수 받았고, 39세에 졸했다.⁶⁾

노운적은 마조의 보호로 무사히 돌아왔던 내용을 송나라 조정에 올리자, 조정은 성돈 마조묘에 순조롭게 건넜다는 뜻을 가진 '順濟'라는 묘액을 하사했다. 마조묘가 조정으로부터 봉호를 받는 것은 마조신앙이 공식적인 신앙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마조신앙은 공식신앙으로 여러 지역으로 신속하게 확대되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했다. 그 후 마조는 역대 조정으로부터 이런 저런 수요에 의하여 지위와 권위를 높이는 많은 봉호를 받았다. 봉호의 직책은 차례로 夫人, 妃, 天妃, 天后를 거쳐 天上聖母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서긍의 《선화봉사고려도경》에는 노운적 일행이 고려 출사 때 마조의 도움을 받았다는 명확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책자에는 노운적 일행이 바다에서 선체 일부가 파손되거나 풍랑에 막혀 오도가지 못한 위난 사태를 당했을 때 다른 해양보호신이 출현했다는 기록만 보이고 있다. 노운적 일행이 탄 선단이 가장

6) 莊景輝·林祖良, 〈聖墩順濟廟考〉, 《海內外學人論媽祖》,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北京, 1992. 7, 쪽403~404.

커다란 위난 사태는 고려에서 귀국할 때 黃水洋에서 발생한 선체 파손과 좌초 위험이었다. 첫째 배는 얇은 곳에 가서 모래톱에 거의 박힐 뻔했고, 서궁이 탄 둘째 배는 키 세 개가 다 부러지는 파손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사신선을 탄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간절히 기도하니 福州 演嶼神이 나타나 기적을 일으켜 조난위험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다.⁷⁾

演嶼神은 원래 당나라 복건관찰사 陳巖의 장자가 죽어서 승격된 인격신이다. 乾符 연간에 黃巢가 복건을 점령하자, 진암은 그 자신이 조정을 도와줄 힘이 부족하니 죽어서 신이 되어 살아있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겠다고 했다. 그가 죽자 당시 사람들이 連江 演嶼에 사당을 세우고 신으로 모셨다. 선화 5년에 노윤적은 고려에 출사하면서 연서신이 바다를 건너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조정에 주청하자, 조정은 昭利라는 묘액을 하사했다.⁸⁾

요봉비의 <성돈조묘중건순제묘기>에는 이번에 고려로 간 선박 8척 중 7척은 노도와 광풍을 만나 침몰하고 노윤적이 탄 배 1척만이 마조의 도움을 받아 무사했다고 했다. 앞서 논했듯이 <선화봉사고려도경>에는 노윤적 일행이 나누어 탄 선박들이 한때 선체 파손과 조난위험을 겪었지만, 8척 모두 고려로 갔다가 무사히 귀국했다고 적혀있다. <선화봉사고려도경>은 동선자인 서궁이 직접 적은 기록이고, <성돈조묘중건순제묘기>는 제삼자인 요봉비가 전해 들었던 기록이다. <선화봉사고려도경>에는 마조에 관해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인지 몰라도 일부 학자들은 <성돈조묘중건순제묘기>의 신뢰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⁹⁾

그렇지만 요봉비는 <성돈조묘중건순제묘기>를 작성하면서 노윤적 일행이 위난을

7) <선화봉사고려도경> 권34 <海道一·黃水洋>: 「比使者回程至此, 第一舟幾遇淺. 第二舟, 午後三桅併折, 賴宗社威靈, 得以生還。」

동서 권39 <海道六·禮成港>: 「若遇危險, 則發於至誠, 虔祈哀懇, 無不感應者. 比者使事之行, 第二舟至黃水洋中, 三桅併折, 而臣適在其中, 與同舟之人, 斷髮哀懇, 祥光示現. 然福州演嶼神亦前期顯異, 故是日舟雖危, 猶能易他桅, 既易, 復傾搖如故, 又五晝方達明州定海. 比至登岸, 舉舟懼悼, 幾無人色. 其憂懼可料而知也。」

8) 梁克家 <淳熙三山志> 권8 <祠廟·昭利廟>: 「東瀆越王山之麓. 故唐福建觀察使陳巖之長子, 乾符中黃巢陷閩, 公睹唐衰微, 憤己力弱, 莫能興復, 慨然謂人曰: 吾生不鼎食以濟朝廷之急, 死當廟食以慰生人之望. 既歿, 果獲祀連江演嶼. 本朝宣和二年, 始降于州. 民遂置祠今所. 五年, 路允迪使三韓, 涉海遇風, 禱而獲濟, 歸以聞, 詔賜廟額昭利。」

9) 莊景輝·林祖良, 앞의 서지, 쪽403~406.

당하는 모습을 과장되기 서술하였지만, 마조 출현과 성돈 묘우 기록은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성돈조묘중건순제묘기〉의 작성 시기보다 조금 늦게 나온 여러 문헌에서 성돈 마조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黃公度的 《知稼翁集》에는 성돈 마조의 유래와 신령함을 읊은 〈題順濟廟〉(권5)가 수록되어있다. 황공도는 복건 보전 사람으로 紹興 8년(1138)에 급제하여 관직으로 平海軍節度判官, 吏部考功員外郎 등을 지냈다. 〈제순제묘〉는 소흥 21년(1151)에 平海軍節度判官으로 있을 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성돈 마조묘를 들렀을 때 이미 순제라는 묘액을 받았고, 이 시점은 노윤적이 고려로 출사한 선화 5년(1123)부터 채 삼십 년도 되지 않았다. 이 시에는 마조가 죽어서 국가에 공을 세웠고 백성들을 돌봐주며 천리 돛대에서 신호를 보냈다는 구절이 있다.¹⁰⁾ 이 구절은 마치 〈성돈조묘중건순제묘기〉에서 노윤적이 탄 배가 침몰 위험에 빠졌을 때 마조가 돛대에서 춤을 추어 항해 안전을 도모하여 나라에 공을 세웠다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

《宋會要》는 북송 인종에 秘書省에서 처음 편찬한 이후 대대로 계속해서 증보 수정했고, 오늘날 전해오는 것은 청 徐松이 《永樂大典》 등에서 뽑은 輯稿本이다. 《宋會要輯稿》에는 마조를 섬기는 보전 神女祠의 기록을 담은 〈神女祠〉 조항이 수록되어있다. 〈신녀사〉 조항에서 신녀사는 북송 선화 5년에 송 휘종에게 順濟라는 묘액을 하사 받았다고 했다.¹¹⁾ 선화 5년은 노윤적 일행이 고려로 출사하고 귀국한 해이다. 또 樓鑰의 《攻媿集》에 紹熙 원년(1190)에 光宗이 보전 順濟廟에게 봉호를 하사한 制文이 수록되어있다. 이 제문에 마조가 朱衣를 입고 鷄林(여기서는 고려를 지칭함)으로 가는 사신을 보호했다고 했다.¹²⁾ 이 기록 또한 요봉비 〈성돈조묘중건순제묘기〉의 기록과 매우 흡사하다.

일반적으로 노윤적의 고려 출사 때 도움을 준 신은 마조와 연서신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이보다 훨씬 더 많고 복잡하다. 《선화봉사고려도경》에는 노윤적 일행이 명주와 고려 禮成港 사이를 오가면서 많은 해신에게 제사를 올린 기록들이 기술되어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0) 《知稼翁集》 권상 〈詩·題順濟廟〉: 「枯木擎靈滄海東, 參差宮殿峯晴空, 平生不厭混巫媼, 已死猶能效國功, 萬戶牲醪無水旱, 四時歌舞走兒童, 傳聞利澤至今在, 千里危樯一信風。」

11) 《宋會要輯稿》 禮20 〈神女祠〉: 「莆田縣有神女祠, 徽宗宣和五年八月, 賜額順濟。」

12) 樓鑰 《攻媿集》 권34 〈外制·興化軍莆田縣順濟廟靈惠昭應崇福善利夫人封靈惠妃〉: 「服朱衣而護雞林之使。」

- 5월 경 定海 攄持院에 7일 동안 도장을 열었음
 5월 경 正海 顯仁助順淵聖廣德王祠(동해 龍王)에서 축원함
 5월 25일 沈家門 산에서 祠沙함(岳瀆 祭신)
 5월 26일 梅岑(보타산) 寶陀院에서 관음보살에게 축원함.
 5월 28일 海鹽焦에서 神霄玉清九陽總真符, 風師龍王牒 등 13符를 바다에 던짐.
 5월 29일 黃水洋에서 祠沙함.
 6월 10일 뱃사람들이 蛤窟(永宗島) 龍祠에서 제사지낸다고 함.
 8월 21일 귀국 길 黃水洋에서 연서신에게 기도함.

노윤적 일행은 항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장소에서 여러 신에게 축원을 했다. 이들이 축원한 장소는 사찰, 사당, 산, 바다이고, 축원한 신들은 동해 용왕인 廣德王, 불교 해양신인 관음보살, 산천과 바다를 관장하는 악독 제신, 복주 연서신 등이다. 당시 중국 신앙에는 여러 해양보호신이 혼재하고 있었고, 조정이나 민간에서도 여러 해양보호신을 섬기고 있었다. 노윤적 일행은 지나가는 곳에 해양보호신을 모시는 사묘나 산, 바다가 있으면 반드시 이들 해양보호신에게 항해안전을 축원했다.

노윤적이 고려 출사에서 여러 해양보호신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오자, 이 사실을 조정에게 아뢰었다. 이때 송나라 조정은 해양보호신인 마조와 연서신에게 봉호를 하사한 것 외에 동해 용왕인 廣德王에게 顯靈이라는 봉호를 하사했다. 용왕은 중국에서 바다나 강, 호수 등 갖가지 수역과 그곳에 사는 생물을 관장하는 신이다. 중국 전설에 따르면 바다를 지역과 방향에 따라 4곳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 동해를 관장하는 용왕을 광덕왕이라 했다. 북송 元豐 원년(1078)에 사신 安濤와 陸陸이 고려로 출사할 때 용왕의 보호를 받아 무사히 바다를 건넜다고 조정에 주청하자, 송 神宗은 淵聖廣德王이라는 봉호를 하사했다. 崇寧 연간과 大觀 연간에 각각 崇聖宮과 助順이라는 봉호가 더해졌다. 선화 연간, 즉 노윤적의 고려 출사 때 또 다시 顯靈이라는 봉호가 더해졌다.¹³⁾

그렇다면 노윤적 일행을 보호한 다른 해양보호신에게도 마조, 연서신, 광덕왕의 경우처럼 봉호를 하사하였는가? 여기에 대해 사료 부족으로 면밀하게 알 수는 없지

13) 《(延祐)四明志》 권15 〈祠祀攷·定海縣〉: 「東海助順孚聖廣德威濟王廟, 在現東北五里, 宋元豐元年安濤·陳睦奉使高麗, 還, 上言請建東海神於明州定海縣, 詔封淵聖廣德王, 崇寧賜額崇聖宮, 大觀加封助順, 宣和加封顯靈。」

만, 어쩌면 이들에게 따로 봉호를 내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관음보살은 중국에서 널리 알려진 보살 중의 하나이며, 중국대륙 어느 지역이던 간에 대승 사찰이면 거의 어김없이 불전에 모셔져있다. 관음신앙은 조정과 민간에 깊숙이 자리 매김하고 있었으며, 특히 普陀山을 비롯한 바닷가 지역에 해양보호신으로 널리 알려졌다. 관음의 위치는 보살 반열에 있기 때문에 조정에서 따로 봉호를 내릴 필요가 없었다. 노윤적 일행이 해러초에서 조복을 갖추고 어전에서 내린 神霄玉清九陽總眞符, 風師龍王牒, 天曹直符引五嶽眞形, 止風雨 등 13符를 바다에 던지고 깊은 바다로 나갔다. 13부에 적힌 각종 신은 잡다하게 많았고, 해양보호신과 다소 거리에 있는 신도 있었기에 특별히 봉호를 내리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

한편, 노윤적의 고려 출사에는 많은 민간 출신의 뱃사람과 상인들이 함께 나섰다. 《선화봉사고려도경》의 기록에 따르면 조정에서 사신을 파견할 때는 언제나 출발하기에 앞서 閩浙(福建과 兩浙) 관청에게 위촉하여 객주 선단을 모집했다.¹⁴⁾ 객주 선박에 탄 사람의 숫자가 한 척당 60명이고, 신주는 객주의 3배이다.¹⁵⁾ 이번 선단에는 신주 2척과 객주 6척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으로 통계를 내어보면, 승선 총원은 무려 720명에 달한다. 이 중에 상당수가 신주와 객주를 모는 뱃사람이다. 당시 송나라와 고려국 사이에는 바다를 통한 물자 교역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증거를 송나라 상인들이 바다를 통해 한반도 고려국에 와서 교역을 한 통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선행 학자들이 정리한 기록에 의하면 북송 大中祥符 5년(고려 현종 3년; 1012)부터 남송이 멸망한 祥興 2년(충렬왕 5년; 1031)까지 134차례가 있었다.¹⁶⁾ 노윤적의 고려 출사 이전만 하더라도 송나라 상인들이 바다를 통해 고려국에 98차례나 왔다. 원풍 원년(문종 28년; 1074)에 송나라 조정은 요나라의 남침으로 인하여 산

14) 《선화봉사고려도경》 권34 〈海路一·客舟〉: 「舊例, 每因朝廷遣使, 先期委福建兩浙監司, 顧募客舟。」

15) 《선화봉사고려도경》 권34 〈海路一·客舟〉: 「每舟篙師水夫可六十人。——若夫神舟之長闊高大·什物器用人數, 皆三倍於客舟也。」

16) 朴玉杰의 통계에는 원 대덕 5년(충렬왕 27년; 1301)에 강남 상인이 온 사례를 포함해서 모두 135차례라고 기술했으나, 본 논문에서는 원 대덕 5년이 원나라 시대였기 때문에 제외함. 만약 송 사신의 고려 출사 때 함께 온 상인들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음. 朴玉杰, 〈宋代商人來航高麗與麗宋貿易政策〉, 中韓人文科學研究, 2집, 韓中人文科學研究會, 1997, 쪽 112~127.

동반도에서 출발하는 황해횡단항로를 강남 명주에서 출발하는 황해사단항로로 바꾸었다. 이 시기부터 노윤적의 고려 출사 이전까지 송나라 상인이 고려국에 37차례나 들어왔다. 고려에 온 송나라 상인과 뱃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매년 적게는 십여 명이고,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렀다. 그 중 소흥 18년(毅宗 2년: 1148)에는 330명이나 되는 대규모 상인 집단이 고려에 들어왔다. 상인과 뱃사람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 주로 복건과 절강, 광둥 지역 출신이고, 그 중에 복건 泉州 상인이 유별나게 많았다. 당시 천주는 대외해양교통사의 중심지로 북쪽으로 한반도와 해상 교류가 잦았고, 오늘날에 한국과 관련된 유적이거나 지명, 사물들이 많이 남아있다.¹⁷⁾ 천주항은 마조의 고향인 湄洲灣 해역과 매우 가깝다. 미주만 해역은 천주항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반드시 지나가는 곳이다.

노윤적 일행의 고려 출사에는 閩浙 뱃사람과 상인들의 도움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閩浙 출신의 뱃사람과 상인들은 예전부터 고려국과의 해상 교류를 통해 황해사단항로의 뱃길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고려국의 정세나 풍속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이번 선단을 이끌어갈 뱃사람의 수령은 바닷길을 익히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¹⁸⁾ 수령은 이미 여러 차례 바닷길로 고려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려 출사에서 노윤적 일행이 숭배하는 해양보호신은 출신 지역에 따라 서로 달랐다. 복건 보전이나 인근 지역의 출신들은 각각 마조와 연서신을 숭배했다. 사신선이 한반도 예성항에 도달한 이후, 뱃사람들은 선박이 정박한 예성항에 계속 머물고, 상인들은 사신을 따라 개성으로 들어갔다. 개성 남문 밖에는 중국 상인들을 접대할 관사로 淸州館, 忠州館, 四店館, 利賓館 등 4개의 관사가 있었다. 중국 상인들은 사신들과 함께 고려 개성과 예성항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수많은 고려 사람들과 만나 양국의 사정을 알아보며 자국의 소식을 소개하는 등 활발한 정보 교류가 있었다. 이때 마조를 신봉하는 李振 같은 인물들이 고려 인사와 접촉하며 자연스럽게 마조신앙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뱃사람은 예성항에 머물면서 선박을 수리하며 필요한 물자를 구비하는 등 귀국

17) 葉恩典, 〈古代泉州與新羅高麗的海上交通及文物史迹探源〉, 古代中韓海上交流學術研討會, 浙江大學韓國研究所, 泉州, 2005. 11. 2, 쪽214~251.

18) 《선화봉사고려도경》 권31 〈海路一·客舟〉: 「惟恃首領, 熟識海道。」

준비를 했다. 이 중에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마조신앙을 믿는 복건 출신의 배사람들도 있었다. 마조 신봉자들은 예성항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해상 안전을 지켜주는 마조신앙을 주변 고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거나 고려 사람들이 송나라 선박에 드나들면서 선실에 모시고 있던 마조 제단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비록 후대 기록이지만, 조선 관인들이 한반도에 표착해 온 청나라 선박에서 마조를 모시는 제단을 보았던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송나라 사신 일행은 예성항에서 귀국하기 직전에도 명주에서 출발할 때처럼 마조를 포함한 여러 보호신에게 축원을 했을 것이다. 이때 주변 고려 사람들은 노윤적 일행이 축원하고 있는 마조신앙의 치제 과정을 보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정황 추리만으로 고려 사람들이 마조신앙을 받아들였다고는 단정할 수가 없지만, 최소한 이들이 마조신앙을 접촉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이때 고려 사람들이 마조신앙을 접촉했다라도, 단순히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순 접촉은 훗날 황해와 발해만을 빈번히 오가던 양국의 배사람과 상인들에 의해 계속 반복되어, 끝내는 한반도 북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고려 배사람들이 마조신앙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三. 고려말기 마조신앙의 접촉과정

고려 시대 한반도와 중국 대륙의 해상교류는 중국 각 조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려는 臨安(杭州)에 수도를 둔 남송과의 해상교류는 여전히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다가 원나라가 중원을 차지한 이후 大都(北京)에 수도를 둔 원나라와의 해상 교류는 급속도로 하향추세로 돌아섰다. 고려와 원나라 사이에 이루어진 사신 왕래는 요동과 하북을 잇는 육상 통로였다. 물론 이 시기에도 고려와 원나라 사이에 慶元(寧波)을 중심으로 한반도에 전쟁 물자와 군사를 배치하기 위한 해상 운송이 이루어졌지만, 전반적인 상업 왕래와 물자 교역은 매우 저조했다. 명나라가 金陵(南京)을 수도로 삼아 건국하자, 고려와 명나라의 해상교류가 사신왕래

를 중심으로 다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명나라 건국 초기에는 양국의 사신들이 장강 일대와 한반도 사이에 개설된 해상 노선을 통해 오갔으나, 홍무 5년(고려 공민왕 21년; 1372)에 고려 사신선이 許山에서 침몰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요동반도에서 산둥 登州(蓬萊)로 이어지는 발해만 묘도열도 항로로 변경되었다.

발해만 묘도열도 항로에는 중요한 마조묘가 세워져있다. 이것은 바로 沙門島 天妃廟(廟島 顯應宮)이다. 사문도는 이곳에 마조신앙이 크게 성행하면서 점차 海神娘娘廟(천비묘의 세칭)가 있는 섬으로 알려지다가, 끝내 묘도에게 도서명 자리를 내어주었다. 묘도는 묘도군도의 남단 해역에 縣政府의 소재지인 長島에서 2.5해리 떨어진 조그만 섬이다. 천비묘는 묘도 북단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곳 주변 해역은 여러 섬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과 풍량이 비교적 잔잔하여 예전의 선박들이 정박하기 좋은 곳이었다.

천비묘는 마조신앙이 북쪽 지역으로 처음 전파된 묘우이며, 복건 미주서 마조묘와 함께 南北祖庭이라 불린다. 천비묘는 송 선화 4년(1122)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창건 당시에는 세 칸 규모를 가진 조그만 묘우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원나라 때 閩浙 선박들이 물자 운송을 위해 대거 북방으로 올라와 사문도를 중간 기착지로 삼았다. 이때부터 천비묘는 커다란 묘우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다. 至元 16년(충렬왕 5년; 1279) 전후에 뱃사람들이 출자하여 마조를 주신으로 삼는 묘우를 중축했다. 명 崇禎 원년(조선 인조 6년; 1628)에는 조정으로부터 顯應宮이라는 묘액을 받았다. 청 咸豐 연간에 조정으로부터 “神功濟運”이라는 액자를 받았다.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묘우가 철폐되어 신상이 파괴되는 등 근 1천 년 이어오던 향불이 꺼지게 되었다. 1982년 이후 몇 차례 전면적인 복구 작업을 하여 옛 모습대로 복원했다.

고려 말기의 사신들은 빈번히 발해만을 건너면서 주변 경관이나 유적을 관찰하고 자신이 느낀 감정을 시문으로 남겨놓았는데, 여기에 마조 관련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鄭夢周는 고려 말기에 활약한 문신이다. 그의 외교 노선은 親明排元으로 명나라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도모했고, 恭愍王 21년(洪武 5년; 1372)을 필두로 여러 차례 명나라로 출사했다. 禔王 12년(홍무 19년; 1386)에 사신이 되어 금릉에 나갔다가 귀국하면서 등주에서 발해만을 건너기 위해 선박을 탔다. 이때 사문도에서 잠시 정박하면서 읊은 시편이 있다. 《圃隱集》 권1 〈沙門島〉에서:

神女祠何處	神女祠는 어디 있는가
沙門海上岑	사문도 바다 위 봉우리에 있네
戎車連鶴野	戎車는 鶴野에 잇달아 있고
貢道接鷄林	貢道는 계림에 잇닿아 있다
利涉由靈貺	잘 건너감은 신령의 도움에서 비롯되고
徽封自聖心	아름다운 봉호는 성상의 마음에서 나왔네
泊舟來酌酒	배를 대어 와서 술을 따르고
稽首冀來歎	머리를 조아리며 흠향을 바라네

여기의 신녀사는 마조를 모시는 天妃廟를 지칭한다. 신녀는 마조 별칭 중의 하나이다. 이 시는 천비묘의 모습과 제례를 올리는 모습을 담았다. 천비묘는 사문도 바닷가에 자리잡고 있다. 당시 묘도군도 거주민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의 남북을 오가는 뱃사람, 심지어 고려에서 온 뱃사람들도 마조신앙을 믿고 있었다. 이들의 마음 속에 마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대단했다. 당시 마조는 항해의 안전과 어업의 수확을 관장하는 해신에서 벗어나, 인간의 모든 운명을 관장하고 결정해주는 천상신의 반상까지 올라와 있었다.

뱃사람들은 등주에서 정몽주를 태우고 발해만을 건너다가 사문도에서 잠시 정박하고 순풍을 기다렸다. 이때 이들은 정몽주에게 마조신앙을 자연스럽게 얘기했고, 정몽주도 사문도 바닷가에 소재한 마조묘를 둘러보고 마조신앙을 확인했다. 정몽주는 이 시에서 발해만을 잘 건너는 것은 마조의 신령한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마조가 황제로부터 아름다운 봉호를 받았다고 했다. 마조는 역대 조정으로부터 여러 차례 봉호가 더해졌다. 정몽주가 활동했던 당시에도 명나라 조정은 봉호를 내린 적이 있었다. 홍무 5년(공민왕 21년; 1372)에 태조는 마조가 해상 운수와 어업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며 “昭孝純正孚濟感應聖妃”라는 봉호를 하사했다. 정몽주는 천비묘에 나아가 술을 올리고 머리를 조아리며 마조에게 항해안전을 축원했다.

李崇仁은 고려말 정몽주와 같은 노선을 걸었던 문신이다. 그는 성리학파 시문에 조예가 깊었으며, 고려 멸망년(홍무 25년; 1392)에 정몽주 일파로 몰려 유배되었다가 곧이어 조선 개국파에 의해 피살되었다. 고려 우왕 12년(홍무 19년; 1386)에 正朝使가 되어 명나라 금릉을 다녀왔고, 恭讓王 1년(홍무 22년; 1389)에 재차 정조사가 되어 금릉을 다녀왔다. 그의 문집 《陶隱先生詩集》에는 사문도에서 지은

작품으로 〈天妃廟次韻〉, 〈沙門島偶題〉, 〈留沙門島, 奉呈同行評理相君〉(이상 권2), 〈沙門島懷古〉(권3) 등 4편이 수록되어있다. 이 중에 사문도 天妃廟를 둘러보고 읊은 〈天妃廟次韻〉을 감상해본다.

孤嶼開祠宇	외로운 섬에 사우를 창건하고
豐碑紀歲年	풍부한 비석에 세월을 기술해놓았네
神光時自發	신령한 빛이 때때로 절로 발하고
灑氣遠相連	청명한 기운이 멀리 서로 접했네
繪絲多靈像	신령한 상에는 채색을 많이 칠했고
椒馨列盛筵	풍성한 제단에는 산초향내가 가득하네
感通眞莫測	감응은 실로 예측하기 어려워
賴爾廟官傳	전하는 것은 너희 묘관에 달렸네

이 시에서 당시 사문도 천비묘의 제반 모습을 그려놓았다. 바다 가운데 한 외로운 섬에 천비묘가 세워져있었다. 천비 이름은 원 지원 18년(1281)에 세조가 내린 “護國明著天妃”라는 봉호에서 비롯되었다. 사문도 천비묘에는 창건 역사와 내력을 담은 비석이 세워져있었고, 묘우 안에는 다양한 색채로 아름답게 꾸며놓은 마조상이 모셔져있었다. 이송인은 마조상을 바라보니 신령한 빛이 때때로 발하고, 청명한 기운이 먼 곳에서 전해와 오묘한 느낌을 받는다. 천비묘에는 마조에게 제향하는 지역민과 뱃사람들로 항상 붐비었다. 제단에는 이들이 차려놓은 제물이 풍성하고 산초로 만든 향내가 묘우 안에 가득히 퍼져있었다. 이때 이송인은 자신의 바램을 마조신에게 직접 감응시키고자 했으나, 그 방식을 알지 못해 마조신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묘관을 통해 대신 전달하고자 했다.

이송인은 〈沙門島偶題〉에서 사문도 사람의 삶의 현장과 천비묘의 풍광에 대해 읊었다.¹⁹⁾ 사문도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외딴 섬에서 바다를 의지하며 모생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 나이가 든 할망구도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망들을 손질하고 있었고, 어린 동자도 일찌감치 바다에 나가 배를 모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당시 천비묘에는 자연 풍광 속의 아름다운 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다. 한

19) 《陶隱先生詩集》 권2 〈沙門島偶題〉: 「海上沙門島, 停帆數日留, 老婆能結網, 童子學操舟, 暎月聞孤鶴, 楊波見孤鶴, 題詩非好事, 聊且慰羈愁. 자주: 「天妃廟中有鶴.」

마리의 외로운 학이 천비묘의 지붕 위에 앉아 달을 향해 울부짖고 있고, 파도는 달 빛에 의해 뿌옇게 어둡거리며 학을 비치고 있었다. 옛 선비들이 학에 대한 사랑은 지극하다. 학은 장수를 염원하고 고고함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학의 크기는 보통 130~140cm 정도 되고, 날개를 펼치면 240cm 정도가 된다. 덩치가 커다란 학이 천비묘 지붕 위에 앉자 있으면 멀리서도 아름다운 자태를 볼 수 있다. 외딴 섬 바닷가에 파도가 일렁이고 고고한 달빛 아래에 학의 자태는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때 이송인은 오랜 사행 기간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었는데, 천비묘의 아름다운 광경에 빠져 잠시나마 시름을 달랠 수 있었다.

훗날 이송인은 다시 한 번 발해만을 건너다가 사문도에서 바람을 기다리며 며칠 동안 정박하게 되었다. 이때 그는 동행한 사신과 함께 〈留沙門島，奉呈同行評理相君〉이라는 시를 지었다.²⁰⁾ 이 시에서 그는 마조에게 기도를 하면 마조가 반드시 이를 들어준다고 했다. 이들은 마조가 향해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마조는 바다의 악귀를 잠재워 해면을 고요하게 만들고 순풍을 불게 하여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달하게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소망은 이송인 자신뿐만 아니라 배에 함께 탄 모든 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였다.

권근은 러말 선초에 활약한 문신이다. 그는 외교적으로 정몽주와 親明 노선을 걸었으나, 정치적으로는 그와 달리 조선 개국에 힘을 보탰다. 고려 昌王 2년(홍무 22년; 1389)에 종사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조선 태조 5년(홍무 29년; 1396)에 表箋問題가 발생하자 자청해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는 尹承順와 함께 일차 사행에 나서면서 읊은 시가들을 〈奉使錄〉(《陽村集》 권6)으로 편찬했다. 창왕 2년 9월 2일 등주에서 발선하여 사문도에 도착하여 바람을 기다렸는데, 이때 지은 시가 〈九月初二日發船，泊沙門島待風〉이다. 이 시의 전반부에서:

秋晨天氣佳	가을 새벽 날씨가 좋고
和暖如春晷	따뜻함이 봄날과 같구나
篙師乃發船	사공들이 배를 띄었지만
海晏波不起	바다가 고요해 물결이 안 이네

20) 《도은선생시집》 권2 〈留沙門島，奉呈同行評理相君〉: 「沙汀矯首立多時，霧景撩人欲賦詩，山作三門潮勢壯，天垂四面日行遲，神妃享祀應須報，海若潛形不敢窺，政擬長風吹送柁，同舟況復濟川資。」

來泊島嶼中	섬 가운데 배를 정박하니
祠宇肅清閑	문 닫긴 사우는 엄숙하고 맑도다
利涉賴陰功	잘 건너감은 음덕에 달린 것이니
默默心有冀	묵묵히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린다

여기에는 선박 운행과 천비묘의 역학 관계를 기술해놓았다. 예로부터 발해만을 건너거나 대륙의 남북을 오가는 배들은 사문도에 잠시 정박하며 순풍을 기다렸다가 출발하곤 했다. 권근이 탄 선박도 사문도에 도달했으나 바람이 불지 않아 출항할 수가 없었다. 당시 선박은 바람과 조류에 크게 영향을 받는 풍력선의 일종이었다. 만약 바람이 전혀 없고 바다가 지나치게 고요하면 오히려 돛에 힘을 받지 못해 운항하는데 많은 지장을 준다. 이때 뱃사람들은 천비묘에 나가 마조에게 소망을 빈다. 권근은 천비묘를 찾았으나 문이 굳게 닫혀있었다. 그는 문밖에서 발해만을 무사히 건너는 것은 마조의 음덕에 달렸다고 마음속으로 묵묵히 축원했다. 여기서의 “利涉賴陰功” 구절은 정몽주(사문도)의 “利涉由靈貺”과 일치한다. 바다를 잘 건너고 못하는 것은 모두 마조에게 달렸다.

다음날인 9월 3일에 권근 일행이 탄 선박들은 출항하기 좋은 남풍이 불어와 사문도에서 출발하려고 했으나, 總旗船 한 척이 늦게 도착하여 마조에게 제례를 지내지 못했다고 출항을 포기했다. 이튿날 정오가 지나서 마조에게 제례를 드렸으나, 갑자기 바람이 서풍으로 바뀌어 또 다시 출항하지 못했다. 이때 권근이 지은 시가 〈初三日, 曉有南風, 欲發船, 因一總旗船未至, 留泊而待. 既晚乃至, 其夜南風甚快, 又因總旗船未致祭, 遷延至初四既午乃祭, 風轉而西, 不得發船, 留宿舟中〉이다. 이 시의 본문에는 사신선이 출항하고 못하는 것은 神妃(마조)에게 달렸다는 구절이 있다.²¹⁾ 당시 사신선을 운행하는 뱃사람들은 설령 출항하기 좋은 바람을 받더라도 해양보호신인 마조에게 제례를 지내지 못했다면 출발하지 않았다. 이들은 거세고 험한 바다에서 어떠한 위험이 닥쳐도 항상 마조가 도와준다는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문도에서 출항하기 직전에 반드시 마조묘에 나가 제례를 지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 마조가 당시 발해만을 오가던 뱃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21) 《陽村集》 권6 〈初三日, 曉有南風, 欲發船, 因一總旗船未至, 留泊而待. 既晚乃至, 其夜南風甚快, 又因總旗船未致祭, 遷延至初四既午乃祭, 風轉而西, 不得發船, 留宿舟中〉: 「引逸天心顯, 遲違人事非, 待風空有喜, 越海却難飯, 漂泊經時節, 淹延送夕暉, 舟中高枕臥, 去住任神妃.」

朴宜中은 려말 선초에 활동한 문신이다. 그는 李穡의 문인으로 문장과 성리학에 밝았다. 禡王 14년(1388)에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鐵嶺衛 문제를 해결하고 왔다. 그는 발해만을 건너는 도중 사문도에 잠시 머물었는데, 이때 지은 시가 〈次沙門島壁上韻〉이다. 〈次沙門島壁上韻〉은 그의 문집인 《貞齋先生逸稿》(권1)와 徐居正 등이 편찬한 선집인 《東文選》(권17 〈七言律詩〉)에 각각 수록되어있다. 이 시에서:

曉日初昇宿霧收	새벽 해가 떠오르자 밤 안개 걷히고
仙宮金壁耀沙頭	仙宮의 황금 벽이 모래톱에 번쩍이네
三隅鼎峙山朝拱	세 모퉁이에 솟은 산이 뚝처럼 겨안고 있고
四面環回海漫流	네 면 주위에는 바닷물이 찬찬히 흐르구나
激石驚濤常湧雪	암석에 성난 물결 부딪쳐 늘 눈이 솟구듯
含風虛閣自生秋	바람이 빈 누각에 들어오니 절로 가을이 생기네
無窮爽概應難盡	끝없이 상쾌한 감정은 다할 수 없고
故作新詩記勝遊	新詩를 지어 뛰어난 유람을 기록하리라

이 시에서 사문도 천비묘와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을 읊었다. 仙宮은 천비묘를 지칭한다. 시인은 천비묘의 벽에 적힌 시의 압운을 빌려 이 시를 지었다. 당시 천비묘의 벽은 황금색으로 칠해놓았다. 중국 사우의 벽은 황금색으로 칠한 경우가 많다. 최근에 신축한 현응궁의 벽에는 붉은 색으로 칠해놓았다. 황금빛의 벽은 아침 햇살이 내리쬐이는 황금빛의 모래톱과 어울려 온통 황금빛 물결로 출렁거리고 있다. 묘우 주변의 형세를 보면 세 모퉁이가 삼발 솥처럼 우뚝 솟은 언덕과 사면으로 둘러싼 바다로 이루어져있다. 거센 물결이 바닷가 바위에 부딪쳐 파편이 산산이 흩어져서 마치 흰 눈이 날리는 형상을 하고 있고, 바다에서 시원한 바람이 텅 빈 누각으로 불어 들어오니 시인은 더할 나위 없는 상쾌한 기분을 느꼈다. 그래서 시인은 시를 지어 천비묘와 주변 경관의 빼어남을 노래했다.

그렇다면 고려 사신들과 마조신앙과의 역학 관계는 어떠한가? 사문도 천비묘를 찾은 정몽주, 이숭인, 권근, 박익중 등 고려 사신들은 마조신앙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가? 상기 자료만 본다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들의 일생을 훑어보면 그렇다고 보기가 힘들다. 이들은 주자학 계통의 성리학 도입과 전파에 온갖 힘을 쏟았던 유학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당시 고려 조야에서 성행한 불교는 과도

한 사찰 조직과 부패한 승려들에 의하여 말기적 조직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이들은 말기적인 불교 승상을 비판하고 성리학에 의거하여 새로운 사유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朱子家禮》에 의거해서 가묘를 세우고 조상에게 제례를 올려야 한다고 했다. 유학자의 사고적 측면에서 본다면 마조신앙은 한갓 민간에서 전해오는 신앙에 불과하고 전통적인 유학의 도통 사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고려 사신들이 사문도 마조묘를 들렀던 과정을 보면 애초부터 마조에게 축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가는 해로 사행의 길목에 있어 우연찮게 들렀다. 이들은 뱃사람들이 마조묘에 나가 향불을 올리는 행위를 보고 동선자의 입장에서 항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치제 의식에 참여했던 것이지, 결코 귀국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조신앙을 믿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고려 사신들이 무사 항해를 기원하는 행위는 사문도 이외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다른 해양보호신에게 치제를 올린 적도 있다. 예를 들면 권근은 등주에서 출발하기에 앞서 봉래각 龍神廟에 나가 항해 안전을 축원했다. 여기에서도 바다를 잘 건너는 것은 앞서 마조의 음덕이라고 했던 것처럼 龍神의 음덕에 달려있다고 했다.²²⁾

얼마 후 해로사행에 나서던 조선 사신들은 고려 사신들에 비해 마조신앙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표방하고, 마조의 음덕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그 증거로 고려 멸망(1392)으로부터 채 10년도 안 되는 시점인 조선 定宗 2년(1400)의 사례를 들어본다. 李詹은 사신선을 타고 사문도를 거쳐 등주 앞 바다에 이르렀다. 사신선은 발해만 북쪽에서 떠내려온 유빙에 의해 갇혀 오도가지 못하고 전복 위험에 빠졌다. 이침은 높은 다락에 올라 天妣(天妃)에게 위난을 구해달라고 향불을 올리고 간절히 기도했다.²³⁾ 또 그는 사문도에서 監生을 香使로 삼아 靈應廟(천비묘)에 나가 마조에게 치제하고 향불을 사신선에 가져와 축원했다.²⁴⁾

고려 사신들이 언급한 상기 시편들은 초기 한국에서 마조신앙을 접촉하는 과정

22) 《양촌집》 권6〈謁龍神廟〉: 「斷峰臨海閣宮深, 肅肅令人起敬心, 風送舟航祈必應, 日修香火祠時忱, 仁洪廣濟含溟渤, 利涉資生配大陰, 萬里朝宗今過此, 冀將神變到鷄林。」

23) 李詹 《雙梅堂篋藏集》 권2〈二十七日, 行舟至登州海口, 俄而冰合不果行, 舟人皆危懼, 與朴評理望天妣於喬房, 香火以禱, 擲杯玆獲吉, 夜半潮退, 忽焉冰解, 遲明乘三板登岸, 乃感應神妙如此, 喜而有作〉: 「海門冰合脫行船, 潮退須臾已渙然, 固是冰沕方便力, 但將消長要知天。」

24) 李詹 《雙梅堂篋藏集》 권2〈又題用登州韻〉: 「久客繞情緒, 當春更惘然, 分香靈應廟, 乞火孝廉船. 자주: 「監生爲香使, 同泊沙門島。」

을 규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 시편들은 현존 문헌 중 고려와 직접 관련된 확실한 마조 자료이다. 우리는 고려 사신들이 마조신앙을 독실하게 믿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중국 해역을 드나드는 고려 뱃사람들은 바다를 관장하는 마조신앙을 경건하게 믿었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7월에 등주의 옛 항구인 蓬萊水城에서 고선박 3척이 발굴되었는데, 그 중 蓬萊 3호선과 봉래 4호선은 고려(조선)선박이다. 봉래 3호선의 침몰 연대는 고려 공민왕 22년(홍무 6년: 1373)부터 조선 태종 9년(영락 7년: 1409)까지로 추정하고 있다.²⁵⁾ 당시 고려 선박과 뱃사람들이 발해만 해역을 드나들면서 중국에서 성행하고 있던 마조신앙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뱃사람들의 출신은 발해만 해역과 가까운 거리에 소재하는 평안도 지역출신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陳正祥이 작성한 媽祖廟 분포도를 보면 평안도 해안지역 5곳에 마조묘가 세워져있었다.²⁶⁾ 평안도 마조묘는 후대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것을 통해 평안도 해안지역에 마조신앙이 이미 성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려 뱃사람들의 마조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四. 결론

媽祖는 북송 초 복건 湄洲嶼에서 생존했던 林默이 승격된 인격신이다. 그의 사후에 복건 미주서 주변 지역에서 해신으로 모셔졌고, 훗날 해상 운송의 발달과 조정의 해상 정책으로 인하여 중국 전 수역으로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오늘날에는 중국 대륙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동남아시아 등 화교가 이주한 세계 곳곳에서 마조신앙을 찾아볼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 마조신앙을 접촉하고 도입한 과정을 알아보는 작업의 일환으로 일차적으로 고려시대에 관련된 사항만 뽑아서 고찰하였다. 북송 선화 5년(고려 인조 1년: 1123)에 路允迪를 정사로 삼은 國信使 일행이 고려국에 왔고, 이때

25) 朴現圭, 〈蓬萊水城高麗(朝鮮)船舶의歷史背景〉, 《蓬萊古船國際學術研討會文集》, 蓬萊古船國際研討會組織委員會, 山東省文化廳, 蓬萊, 2006. 08. 22~24, 쪽258~266.

26) 陳正祥, 앞의 책자, 쪽155, 圖91.

閩浙 출신의 상인과 배사람들이 동행을 하였다. 이들은 明州(寧波)에서 한반도 禮成港까지 오가면서 무사 항해를 도모하기 위해 여러 해양보호신에게 축원했는데, 여기에 마조신이 포함되어있다. 복건 출신의 李振은 노윤적에게 마조신앙을 얘기했고, 송나라 조정은 노윤적의 주청을 받아들여 聖墩 마조에게 順濟라는 묘액을 하사했다. 한편 노윤적 일행은 고려에서 한동안 머물면서 고려 사람들에게 마조신앙을 소개했거나 고려 사람들이 노윤적 일행이 치제하는 마조 의식을 보았을 개연성은 있다. 하지만, 이때에는 어디까지나 고려 사람들이 마조신앙을 단순 접촉한 단계에 불과하고, 본격적으로 믿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고려말에 들어서서 고려 사람들이 마조신앙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접촉했다. 고려와 명나라 양국은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등주와 요동반도를 잇는 해로사행이 개통되었다. 사신 해로사행의 길목에는 북방 지역에 최초로 분파된 沙門島 天妃廟(현 廟島 顯應宮)가 있다. 당시 사문도는 발해만을 건너거나 대륙의 남북으로 오가던 선박들이 머물면서 마조를 섬기는 신앙이 매우 성행했다. 鄭夢周, 李崇仁, 權近, 朴宜中 등 고려 인사들은 사문도 천비묘를 찾아 무사 항해를 기원하거나 마조신앙의 영험에 대해 기술한 작품을 남겼다. 고려 인사들은 비록 동선자의 입장에서 천비묘에 둘러 해상 안전을 도모하는 치제 의식에 동참했으나, 귀국 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조신앙을 믿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곧이어 전개되는 조선 건국 초기의 사신들은 발해만을 오가면서 마조신앙에 대한 믿음과 인식이 보다 명백해졌다. 고려말 발해만을 오가던 배사람들은 마조신앙을 독실하게 믿고 있었다. 배사람들은 주로 발해만과 가까운 평안도 지역의 출신으로 추정되는데, 훗날 평안도 해안지역에 마조묘가 많이 세워진 것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燁燼之樂室: 戊子 正月初三 初稿: 八月廿日 修訂]

참고문헌

徐兢著, 《宣和奉使高麗圖經》(《景印文淵閣藏四庫全書本》), 臺灣商務印書館, 臺北, 1983.

- 黃公度著,《知稼翁集》(《景印文淵閣藏四庫全書本》),臺灣商務印書館,臺北,1983.
- 樓鑰著,《攻媿集》(《景印文淵閣藏四庫全書本》),臺灣商務印書館,臺北,1983.
- 宋秘書省等編,清徐松輯,《宋會要輯稿》(《續修四庫全書》),上海古籍出版社,上海,1995.
- 梁克家著,《(淳熙)三山志》(《宋元方志叢刊》),北京:中華書局,1990.
- 袁等著,《(延祐)四明志》(《宋元方志叢刊》),北京:中華書局,1990.
- 陳正祥,《中國歷史·文化地理圖冊》,原書房,東京,1982.
- 蔣維鈞編校,《媽祖文獻資料》,福建人民出版社,福州,1990.
- 蔣維鈞·鄭麗航輯纂,《媽祖文獻史料彙編》,中國檔案出版社,北京,2007.
- 林文豪主編,《海內外學人論媽祖》,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北京,1992.
- 林國平·彭文字著,《福建民間信仰》,福建人民出版社,福州,1993.
- 羅春榮著,《媽祖文化研究》,天津古籍出版社,天津,2006.
- 曲金良等著,《중국 발해만의 해양민속》,민속원,서울,2005.
- 鄭夢周著,《圃隱集》(《標點景印韓國文集叢刊》),民族文化推進黨,서울,1988.
- 李崇仁著,《陶隱先生詩集》(《標點景印韓國文集叢刊》),民族文化推進黨,서울,1988.
- 權近著,《陽村集》(《標點景印韓國文集叢刊》),民族文化推進黨,서울,1988.
- 朴宜中著,《貞齋先生逸稿》(《標點景印韓國文集叢刊》),民族文化推進黨,서울,1988.
- 高惠蓮著,〈皇會와 朝鮮의 媽祖寺院〉,中國史研究,50집,中國史學會,2007.
- 袁旭,〈利用媽祖文化優勢促進兩岸民間文化交流〉,《第三屆湄洲媽祖·海峽論壇論文匯編》,中華全國歸國華僑聯合會,中華媽祖文化交流協會,莆田,2007.
- 朴玉杰著,〈宋代商人來航高麗與麗宋貿易政策〉,中韓人文科學研究,2집,韓中人文科學研究會,1997.
- 葉恩典著,〈古代泉州與新羅高麗的海上交通及文物史迹探源〉,古代中韓海上交流學術研討會,浙江大學韓國研究所,泉州,2005.

<Abstract>

Research of Mazu(媽祖)'s Works Related to Goryeo(高麗) Dynasty

Park, Hyun-kyu

The paper researched the information and historical data related to Mazu, especially about the contact and acceptance of Korea about the Mazu's religion with historical view limited on Goryeo Dynasy. The Mazu's religion of Goryeo Dynasy could be said a contact period. The envoy Lu Yundi(路允迪), the ambassador on Xuanhe(宣和) of Song(宋) and the sailors from Minzhe(閩浙) came to the Goryeo Dynasy together. At that time, Lizhen(李振) from Fujian(福建) among them and the people who had believed Mazu's religion stayed in Korean peninsular and might have some possibilities for saying about the religion.

On the end of the Dynasty, the people of Goryeo had contacted the Mazu's religion more positively than before. The envoys of Goryeo, like Jeong Mongju, (鄭夢周), Lee Sungin(李崇仁), Gwon Geun(權近), and Park Uijung(朴宜中), abroaded to the Balhae bay(渤海灣) and then visited the branched Tianfei Shrine(天妃廟) in Samen island(沙門島) and performed to Mazu or made the works related the miracles of the religion. Even though the Goryeo's envoys didn't believe the Mazu's religion, their works could be applied to a good evidence that the religion had spread on the end of Goryeo Dynasty. At that time, the Korean crews who had crossed to Balhae bay could believe the Mazu's religion.

主 題 語 : 媽祖, 高麗, 路允迪, 海神, 沙門島

투 고 일 : 2008년 7월 15일 / 게재확정일 : 2008년 8월 15일